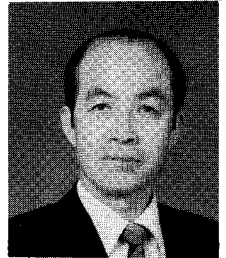


농지와 물

고문 김 철 기



농지가 우리 인류의 생을 지탱해 주는 식량기지임은 예나 지금이나, 그리고 앞으로도 불변의 사실이다.

그러나 물이 없이는 아무리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식량기지로서의 충분한 구실을 하지 못하며, 그 반대로 충분한 물이 있더라도 농지가 될 만한 터전이 없다면 식량 생산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.

이와 같이 농지와 물은 식량생산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.

따라서 농지와 물을 함께 잘 다스리는 나라는 식량 걱정이 없겠지만, 이를 소홀히 다루는 나라는 대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

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지 및 물의 사정은 어떠한가?

오늘의 농지면적 207만ha로는 식량자급율이 40%도 못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, 그 반이 넘는 농지가 농업 외의 타용도로 전용이 손쉽게 되어 식량 안보면에서 식량사정은 더 한층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.

물 사정 역시 연간 수자원부존량이 한계부존량을 훨씬 밑돌아 앞으로 늘어날 생활용수, 공업용수 등과 함께 완전 수리화를 위한 농업용수의 수요량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다.

또한 해마다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로 이용할 가용 수자원도 그 절대량이 줄어들고 있어, 우리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농지와 물의 사정은 견잡을 수 없이 어려운 국면에 빠져 들지도 모른다.

일단 폐기된 농토와 물은 필요할 때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, 그 이동의 곤란성과 대체의 불가능성 등에서 볼 때에도 어느 상품처럼 필요량을 마음대로 만들고, 다른 나라로 부터 수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.

더구나 UN인구 보고 내용과 같이 세계인구가 20억을 넘어설 21세기에는, 세계적 농지부족 현상으로 식량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여, 오늘과 같은 풍요로운 수입의 자유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. 가령 나라에 따라 수입이 얼마간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단히 비싼 값을 치루지 않고서는 수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.

따라서, 후세의 식량안보 및 생명안보를 위한 견지에서 볼 때, 농지 및 물의 관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.

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무정견(無定見)한 농지 및 물의 관리 정책을 하루 속히 시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!

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일지라도 타용도 전용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농지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될 것이며, 물 관리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농업용수의 확보 및 그 유효이용 제고를 위하여 주어진 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함께, 농업용수는 물론이고,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의 낭비적 이용과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물 관리 일체를 이스라엘국처럼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하여 그 효과를 고려해 봄도 앞으로 우리의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.